

이슈 브리핑

●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수소) Accelera, 수소 트럭 주행거리 신기록 달성
- (수소) FCAB, '25년 남미 첫 수소 열차 운행 예정
- (EV) 호주, '24년 3분기 BEV 판매량 25% 감소

●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자율주행) Volkswagen, '25년 독일에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 테스트
- (자율주행) Nuro, 무인배송차량 기능 개선 및 테스트 지역 확대
- (ADAS) Subaru, 첫 자체개발 EV에 차세대 ADAS 탑재 계획

●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CATL) 친환경 에너지 그리드 구축 및 EV 플랫폼 개발로 미래 시장 공략
- (Mahle-MAN) 수소 엔진 부품 공급계약 체결
- (Northvolt) 경영 위기 속 미국 파산 보호 검토

친환경차 / 탄소중립

◆ (수소) Accelera, 수소 트럭 주행거리 신기록 달성

- Accelera의 수소 트럭 'H2Rescue*'는 '24.10월 캘리포니아에서 1회 충전으로 1,806마일(약 2,906km)을 주행**하며 기네스북 신기록(FCEV 대형 트럭 기준) 달성

* Kenworth T370 트럭 기반의 재난구호차량

** 약 88.5km 내외의 시속으로 주행하며 수소 168kg 소모(총 175kg 탑재)

- 해당 트럭은 Class 7(약 11~15톤급)으로 Accelera의 연료전지와 250kW 구동 모터를 탑재하였으며, 시연 차량 개발에는 美 국토안보부·에너지부·국방부 등도 참여

※ Fuel Cell Works('24.10.31.) <https://fuelcellworks.com/2024/10/31/fuel-cells/accelera-sets-guinness-world-record-for-longest-journey-by-hydrogen-powered-truck>

◆ (수소) FCAB, '25년 남미 첫 수소 열차 운행 예정

- 칠레 FCAB*는 '24.10월 남미 첫 수소 열차를 공개하였는데, 칠레(안토파가스타)와 볼리비아를 잇는 노선에 투입되어 '25년 운행을 개시할 예정

* 칠레 구리 생산 기업 Antofagasta의 수송 부문

- 해당 노선에 투입될 열차는 中 CRRC Qishuyan의 열차로, 1000kW 연료전지와 35 MPa 수소 저장시스템 등을 갖췄으며 또한 기존 수소 열차 대비 30톤가량 가벼운게 특징

* 한편 FCAB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그린 수소의 공급처 또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

※ Power Progress('24.11.15.) <https://www.powerprogress.com/news/first-h2-fuel-cell-locomotive-in-south-america/8040262.article>

◆ (EV) 호주, '24년 3분기 BEV 판매량 25% 감소

- 호주자동차협회(AAA)에 의하면 현지 '24년 3분기 BEV 판매량은 18,990대로 2분기(25,353대) 대비 25% 감소하였으며, 시장 점유율도 '22년 이후 최저인 6.57% 기록

*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량도 같은 기간 9.16% 감소(236,129대→214,500대)

-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3.33% 증가해(46,727대→48,282대) 16.7%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, 특히 PHEV의 판매량이 56.64% 늘어(4,675대→7,323대) 시장 점유율이 2.53%로 상승

* 한편 유트(픽업트럭의 일종)와 밴 시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비중이 각각 99%와 98% 이상으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유지

※ 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('24.11.10.) <https://www.aaa.asn.au/library/electric-vehicle-index-q3-2024/>

◆ (자율주행) Volkswagen, '25년 독일에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 테스트

- 독일 현지 언론사에 따르면, '25년 함부르크에서 Volkswagen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 MOIA*와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 ADMT**는 안전운전자가 탑승한 자율주행 전기 밴 'ID. Buzz AD***' 승차 공유 서비스 테스트 시작, '26년 정식 운행 계획

* '19년부터 함부르크, 하노버에서 경로가 유사한 승객끼리 운전자 주행 차량 승차를 공유하는 라이드풀링 서비스 제공

** '23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'ID. Buzz AD'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해 설립됨

*** Mobileye와 협력을 통해 개발한 Lv.4 자율주행 플랫폼이며, 카메라 13개, LiDAR 9개, Radar 5개 등으로 구성, 브레이크, 스티어링, 파워 플라이 이중화 시스템 탑재, 양산 버전은 4개 좌석 및 수하물 공간 보유

※ Haz('24.11.19.) <https://www.haz.de/der-norden/moia-testet-autonomen-id-buzz-ad-von-volkswagen-in-hamburg-PJ6EL4EG6RHBLEGXJS6EHL7BKE.html>

◆ (자율주행) Nuro, 무인배송차량 기능 개선 및 테스트 지역 확대

- 자율주행 기술 기업 Nuro*는 탑승공간이 없는 무인배송차량의 Lv.4 자율주행 기능을 개선**하고, 자율주행 기술을 구매할 잠재 고객***에게 개선된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, 미국 캘리포니아, 텍사스의 일부 도시에서 테스트 지역을 확대할 계획

* 무인배송차량에 대해 최초로 美 교통부의 차량안전 요구사항을 면제받음

** 고속도로 외 모든 도로에서 최대 56km/h 주행, 응급차량 및 스쿨버스 대응, 공사 현장 감지, 야간 운행 가능

*** 무인배송차량 생산 운영에서, '24.9월 자동차 제조업체와 배송-승차공유업체에 자율주행 기술 판매로 비즈니스 전환

※ Tech Crunch('24.11.19.) <https://techcrunch.com/2024/11/19/nuro-expands-driverless-autonomous-vehicle-testing-in-push-to-attract-customers/>

Kitrum('24.9.27.) <https://kitrum.com/blog/the-inspiring-story-jiajun-zhu-ceo-of-nuro/>

◆ (ADAS) Subaru, 첫 자체개발 EV에 차세대 ADAS 탑재 계획

- Subaru는 AI 기반 차세대 ADAS 'EyeSight'를 개발하여, 이르면 '27년 출시 목표인 첫 자체개발 EV*에 탑재할 계획

* 현재 출시되어 있는 Subaru EV 'Solterra'는 Toyota 'bZ4X' Rebadging 모델로 플랫폼, 배터리가 동일하나, Toyota와 달리 Subaru는 전 트림 4륜구동 및 듀얼모터 탑재

- 미국 반도체 제조사 Onsemi는 차세대 'EyeSight' 스테레오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주요 공급업체가 될 예정이며, Subaru는 AMD와 협력하여 최적화된 AI SoC* 설계

* '24.4월 출시된 AMD의 2세대 Versal AI Edge Series 적응형 SoC를 기반으로 하는데, 해당 제품은 AI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을 가속화하며, 전처리, AI 추론, 후처리 기능을 단일 칩으로 구현함

※ Automotive News('24.11.19.) <https://www.autonews.com/subaru/an-subaru-eyesight-ai-electric-vehicle-onsemi/>

◆ (CATL) 친환경 에너지 그리드 구축 및 EV 플랫폼 개발로 미래 시장 공략

- CATL은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이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, 광산 단지, 도시,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그리드* 구축 목표

* 태양광 및 풍력 발전, 전용 저장 장치, 주차된 EV의 유희전력 활용을 포함해 공급할 계획

- 또한 동사는 주행거리 800km 이상, 사고 손상 보호 방식으로 배터리를 새시에 통합한 EV 플랫폼* 제공 계획을 밝혔는데, 이를 통해 EV 개발 비용을 대폭 줄여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함

* 차량 내-외부만 설계하여 맞춤형 EV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성품(Off-the-shelf)으로 출시할 계획이며,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, 프로젝트 코드명 'Panshi', 'Bedrock'으로 고객사에 마케팅을 시작함

※ Reuters('24.11.13.) <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autos-transportation/chinese-giant-catl-pushes-beyond-batteries-into-power-grids-ev-platforms-2024-11-13/>

◆ (Mahle-MAN) 수소 엔진 부품 공급계약 체결

- Mahle는 VW 산하 상용차 제조사 MAN Truck & Bus로부터 수소 연소 엔진 부품 공급계약을 수주하여 Mahle의 수소 연소 엔진 부품을 장착한 MAN의 수소 연소 트럭 'MAN hTX*'는 '25년부터 글로벌 고객사에 약 200대 공급될 예정

* 6기통 직분사 엔진(배기량 16.8L, 출력 383kW) 탑재, 주행가능거리 600km

※ Mahle('24.11.18.) <https://newsroom.mahle.com/press/en/press-releases/mahle-awarded-contract-from-man-truck-bus-for-hydrogen-powered-truck-106432#>

Man Truck & Bus('24.8.4.) <https://press.mantruckandbus.com/corporate/man-expands-its-zero-emission-portfolio/>

◆ (Northvolt) 경영 위기 속 미국 파산 보호 검토

- Reuters는 스웨덴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 Northvolt가 최근 몇 달간 생산 문제, 주요 고객 상실, 현금 조달 문제 등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했으며, 생존 방안 중 하나로 미국에서 'Chapter 11' 파산 보호 신청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

- 동사는 배터리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, 셀레프테오 공장 2개 중 1개는 생산 중단*되었으며, 비용 절감을 위해 '24.11.11부터 주중에만 생산하여 계약 고객 물량 납품에 집중

* Reuters에 따르면 '24.10월 말부터 1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※ Reuters('24.11.15.) <https://www.reuters.com/legal/northvolt-has-considered-us-bankruptcy-protection-sources-say-2024-11-15/>
Reuters('24.11.18) <https://www.reuters.com/technology/crisis-hit-ev-battery-champion-northvolt-struggles-hit-production-targets-2024-11-18/>